

## 현재 사료의 질은 최악의 상태

—질만 보장되면 사료가격 인상이 오히려 바람직—

<편 집 부>

—「원료 사료가격의 등귀로 극도의 저질사료가 나올  
아 양계인이 입는 피해가 엄청나게 큼니다.」 지난 1월  
24일 사료협회에서 사료관계자와 양계업자의 모임에서  
지방의 모 양계인은 「질을 보장받는 조건하에 사료  
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 사료공장과 양계인이 함께 사  
는 길입니다.」라고 방안을 제시하였다.

사료메이커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수급  
이 간다. 그들이 주장하는 원료사료가격의 변동  
을 간추려 보면,

		72. 6	72. 12	73. 7
옥수수	₩당	60 \$	→ 70 \$	→ 97 \$ (62%)
대두	〃	140 \$	→ 200 \$	→ 233 \$ (69%)
어분	〃	180 \$	→ 229 \$	→ 445 \$ (139%)
대두박	〃	125 \$	→ 244 \$	→ 280 \$ (123%)
채종박(외산)	〃	80 \$	→ 130 \$	→ ?
채종박(국산)	〃	38,000원	→ 56,000원	→
임박	〃	47,000원	→ 59,000원	→
호박	〃	44,000원	→ 58,000원	→
어분	〃	70,000원	→ 88,000원	→

이와같은 추세는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수  
출국가가 흉작으로 수출여력이 감퇴되었을 뿐 아  
니라 소련, 중공, 인도등 대수요 국가의 흉작으  
로 곡물수입량이 급증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 
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실이다.

8·3조치 이후 작년 7월말 가격을 유지하고 있  
는 배합사료의 원가는 1972년 12월 현재 12~13  
%, 1973년 4월에는 40%가 상승된다는 계산이  
다. 사료메이커측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가격  
인상방침을 굳히고 올리는 방법으로 지금 12%  
정도 올리고 오는 4월에 20~30%를 더 올리는

방법과 지금 한번에 30~40%를 올리는 방법  
을 두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그렇다고 사료  
메이커가 현재 12~13%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 
보지는 않으며 거기에는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  
다.

「지방의 모 증계장은 현재의 사료질때문에  
2,000만원의 손해를 본 곳이 있으며 그 외의 양  
계장도 대부분이 사료의 질로 인한 손해를 보고  
있다. 질은 저하되었으면서 가격면에서 보면 과  
거에 혜택을 받던 할인, 운임의 공제가 없어졌  
기 때문에 가격은 실질적으로 인상된거나 다름  
이 없다.」

「과거에 1일 100g섭취하던 닭들이 이제는 120  
~130g 심한 곳은 150g씩 섭취하고도 산란율은  
전만 못한 것이 사실이다. 결과적으로 말해서  
양계인들은 이미 피해를 볼 대로 다 보고 있는  
것이다.」

「양계인의 입장으로 사료메이커측에 유감스러  
운 점이 있다. 현재 사료섭취량으로 계산하더라  
도 가격은 10%정도 인상된거나 다름이 없으므로  
사료공장은 질에 대한 의견을 솔직히 얘기해 주  
어야 할 것이다.」

「주분배합사료로 증계를 기르고 있는데 시중

배합사료보다 16%정도 비싸다. 주문배합사료의 질은 종전 사료와 비슷하지만 일부 원료의 품귀로 제대로 배합을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. 가격을 올릴 때는 올리더라도 지금은 솔직히 질의 저하를 인정하고, 양계인에게 사실대로 인식시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.」

이들의 말대로 양계인은 이미 인상된 가격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료메이커측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. 책임은 있지만 현 실정 하에서는 도산을 무릅쓰고 출혈생산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출혈을 계속하여 사료업체가 도산하게 되면 관련업체가 연대적으로 도산하게 되는 원리를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유지해온 사료업체의 눈물겨운 노력은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. 가격을 올리기로 방침을 굳힌 사료관계자의 얘기로는 「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질이 과거와 똑같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자유 경쟁이 원칙인 이상 질의 상승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. 단지 한번에 올리는 안과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 중에서 어느 방법이 양계인의 피해와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관해 의견을 듣고 싶다.」

「단계적으로 올린다면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가중되어 좋지 않을 것 같다.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료가격 인상에 관한 예보와 계몽을 한 다음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이 사육규모의 축소라는 파급효과를 가져와 양계산물 시세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

다.」

「아무리 예보하고 계몽하더라도 일시에 30% 이상 오르게 되면 충격이 너무 커서 좋지 않다. 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대책을 강구하는데 여유가 생길 수 있다.

이와같이 인상자체에 대해서 원칙적인 찬성은 하지만 막상 올리게 되면 양계가들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.

실사 앞으로는 질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, 생산코스트의 앙등으로 입는 적자폭은 누가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대두된다.

사료 가격인상을 위해서는 사료업자와 양계인이 합심하여 노력했지만 가격이 오른 후에 양계산물의 생산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, 양계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에서 과연 사료메이커에서 같이 힘을 써줄 수 있을 것인가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쪽에 있었던 양계인들이 걱정을 안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.

일부 사료메이커에서는 경비절감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양계인에게 베풀던 기술지도, 애프터서비스에 나가는 비용을 1차로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양계인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. 어려울 때일수록 경영합리화를 위하여, 기술개선을 위하여 더욱 힘써 주어야 할 것이며, 사료원가를 내리기 위한 노력이라면 사료자원의 개발, 유통의 합리화에 의한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.

이런 상황하에서 양계인은 양계인대로 생산비를 낮추고 수익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.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일지를 기록분석하는 일을 철저히 하는 것이 기초단계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. 원인의 분석없이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.

사료가격이 오르더라도 사료메이커는 양계인이 그들의 고객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양계인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.

